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시편 86:1-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
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
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 중 하나입니다.



본편은 시편 3권 중에 있는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비를 호소합니다.

이 시에는 15개의 간청이 있는데 그것은 3, 6, 16절에 반복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다른 표현으로 구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스피전 목사님은 '인간이 구하는 최대의 필요는 자비며 이에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3절)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2절). 이 주제는 7절에서 환난날을 말하면서 반복됩니다.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4절) 괴롭히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16절) 원수들이 내가 은총을 입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물러갈 것이라고 합니다(17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취를 호소하고 싶어 하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을 싫어합니다. 종이 되는 것은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홀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호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다윗의 요청

다윗은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가르치시고 경외하게 하소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15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구원과 도움, 그리고 인도해 달라는 기도는 하면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거나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구원의 복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필요를 알고 그 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3. 논쟁을 가진 기도

시인은 그가 누구이며 그의 필요에 근거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부르짖으며,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라는 이유를 가지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 곧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위대하시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4. 자비하신 하나님

본 시의 주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호소한 모든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분명하게 자비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는 말씀은 구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본 시에서 2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5, 15절).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웠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드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비를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생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를 구하므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3월 2일(주) - 제10기 결혼예비학교를 시작으로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2008년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먼저 3월 2일(주) 제10기 결혼예비학교가 5주 과정으로 개강되며 결혼을 앞둔 모든 커플들, 수강을 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을 원하는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교회에서 결혼예식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이어서 3월 3일(월)에는 제23학기 서울성경대학교 제7기 서울세계선교대학이 각각 10주 과정으로 개강한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대학에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해야 하며, 금년 8월 인도로 파송되는 단기선교에 참여할 성도들은 필히 세계선교대학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3월 4일(화)에는 제15학기 서울주부대학, 3월 6일(목)에는 제16학기 살롬경로대학과 제3기 마

리아학교가 각각 개강된다.

이어서 3월 9일(주)에는 2008년도 전반기 교사양성반과 교구일꾼 양성반이 각각 10주 과정으로, 제20기 찬양대양성반이 7주 과정으로 개강된다. 교사양성반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양성반을 이수한 성도들에게는 교사자격이 주어진다. 교구일꾼 양성반 역시 각 교구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필수과정으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찬양대 양성반은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초를 배운다.

각 프로그램들의 등록비는 각 과정별로 10,000원씩이다.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강좌별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16학기 살롬경로대학> 시간: 목, 오전10:00-오후2:00

날짜	과목	강사
3/6	노인성 관절염	이지동 집사(이정형의과의원 원장)
3/13	황혼의 찬양	고성진 집사(서울교회, 한서대학교)
3.20	치매의 예방	우보라 성도(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3.27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	전광영 집사(서울교회)
4/3	레크레이션	우상태 집사(서울교회)
4/10	신앙 강좌	김은수 목사(협동목사, 백석대학교)
4/17	고지혈증의 예방과 치료	신동혁 박사(비즈메디병원)
4/24	노인성 안질환	노재현 집사(명동안과의원)
5/1	안과 진료	김성태 목사(일로암안과병원 원장)
5/8	야외수업	

<제15학기 서울주부대학> 시간: 화, 오전10:00-오후2:00

날짜	과목	강사
3/4	자녀들의 학습동기 유발 및 창의성 개발 1	강소연 박사(교육학)
3/11	자녀들의 학습동기 유발 및 창의성 개발 2	강소연 박사(교육학)
3/18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이해	이은옥 권사(서울교회)
3/25	청소년기 신앙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진 목사(서울교회)
4/1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진로 및 직업의 탐색	김애순 박사(심리학)
4/8	야외수련회	
4/15	자녀들의 성문제 및 이성관계에 대한 이해와 지도	김미량 교수(서강대)
4/22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의 학생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정선 장로(서울교회)
4/29	독서와 자녀의 독서지도	김사라 권사(서울교회)
5/6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과 예절에 관하여	권소희 집사(서울교회)

<제7기 세계선교대학> 시간: 월, 오후7시-8시30분

날짜	과목	강사
3/3	종교 갈등과 선교	변창욱 교수(장신대 선교학)
3/10	세계선교의 흐름과 한국교회	이광순 교수(장신대 선교학)
3/17	기독교와 이슬람/힌두교	김도훈 총무(중동선교회)
3/24	북한선교의 이해	허문영 박사(한기총 통일선교대학장)
3/31	기독교와 민속종교	김영동 교수(장신대 선교학)
4/7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	주태근 목사(연희중앙교회)
4/14	선교행정과 후원	총회 간사
4/21	21세기 선교전략	문상철 교수(합신대, 한국선교연구원장)
4/28	선교와 순교자	이응삼 목사(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
5/5	휴강	어린이날

<교사양성반> 시간: 주, 오후3시20분

날짜	과목	강사
3/9	교회교육의 목표	이태훈 목사
3/16	구약 개설	윤영국 목사
3/23	신약 개설	장석남 목사
3/30	교사의 자질	정수길 목사
4/6	반목회	노현상 목사
4/13	성경적 교회론	이규정 목사
4/20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한상은 목사
4/27	학습지도	서명철 목사
5/4	교사와 학생(심방, 기도, 상담)	지혜영 전도사
5/11	예배의 자세	노현상 목사

<제3기 미리아 학교> 시간: 목, 오전11:00-오후12:30

날짜	과목
3/6	입학예배/하나님이 주신 내 몸은 소중해요
3/13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린이예요
3/20	인사도 잘해요
3/27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잘 먹어요
4/3	야외학습/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해요
4/10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4/17	차례차례 순서를 지킬 수 있어요
4/24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5/1	깨끗이 씻어요
5/8	수료예배/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교구일꾼양성반(LIC)> 시간: 주, 오후3시20분

날짜	과목	강사
3/9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3/16	다락방장의 리더십	서명철 목사
3/23	성령의 은사체코	정수길 목사
3/30	다락방 전도대	윤영국 목사
4/6	그룹기도 인도	한상은 목사
4/13	다락방 모임시 집단상담	이규정 목사
4/20	이단연구	장석남 목사
4/27	다락방과 교회봉사	노현상 목사
5/4	다락방성경공부 인도법	이태훈 목사
5/11	다락방 행정	지혜영 전도사

<제10기 결혼예비학교> 시간: 주, 오후12:40-1:40

날짜	과목	강사
3/2	성경적 결혼관	이규정 목사
3/9	결혼과 재정관리	박형수 집사
3/16	신혼의 성스러운 성	박정원 집사
3/23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주원순 선생
3/30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박금실 선생

<제23학기 서울성경대학>

과목	요일/시간	강사
고린도전서반	월, 오전 10:00-11:00	노현상 목사
에스겔반	화, 오전 6:00-7:00	이규정 목사
욥기반	목, 오후 7:30-8:30	이태훈 목사
에베소서반	금, 오전 6:00-7:00	윤영국 목사

<찬양대양성반> 강사: 이영조 집사(음악감독) 시간: 주, 오후1:30-3:00

날짜	과목	날짜	과목
3/9	찬양과 예배/경건의 찬양/Evaluation/악보 일반/음명과 계명/조성의 이해	4/6	합창의 실제/대위법적인 구조 (2)/교회 음악사와 감상 (2)
3/16	시창(매주 다른 조성에 따라)/Phrasing과 Blending/노래부르기통한 지휘자되기	4/13	합창의 실제/반주와의 대화 터득 (3)/교회 음악사와 감상 (3)
3/23	찬송가의 구조/화음의 아름다움	4/20	총 정리/각 찬양대 소개
3/30	합창의 실제/다른 파트를 듣는 훈련 (1)/교회음악사와 감상 (1)		

해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파송예배

3월5일(수) 해군사관학교 교회당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3월5일(수) 해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파송예배를 주관한다.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회당에서 열리는 이번 졸업파송예배는 졸업생과 재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설교를 한다. 이날 졸업파송예배에는 우리교회 vision2020운동본부 위원들과 성도들이 참여하여 62기 생도들의 졸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우리교회는 해사와 자매결연식도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교회는 3사단, 23사단, 육군사관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과 자매를 맺고 있다.

한국장로교신학회 제12회 학술발표회

8일(토)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의 제12회 학술발표회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에 갖게 되는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평화'이며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단의 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 발표하게 된다.

성경일천독 대장정 - 1307명

평양대각성운동(1907)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교회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2007년 한 해 동안에 성경 1독 이상씩 하기로 하는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성경일천독 운동본부(본부장 김영준 장로)는 지난 주 공식 발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



이들 통독자들이 읽은 성경의 총 통독횟수는 1,549회나 되며 2회 이상 다독자가 136명으로 이들은 378회 성경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성경을 읽은 성도는 김경철 장로님(12교구)으로 일천독 대장정 기간 중 총 15번 성경을 읽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고 1회 성경을 통독한 성도는 무려 1,17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성경을 필사하신 성도들도 많이 나와 총 22명으로 한글 성경을 필사하신 성도는 20명, 영문 성경을 필사하신 성도는 2명이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1307명의 성도들이 성경을 완독하여 은혜로 모든 순서를 마칠 수 있었다.

완독한 성도 1307명의 소속별 분포는 유년부 6명, 초등부 18명, 중등부 10명, 고등부 9명, 대학부 56명, 청·장년 1,141명, 70세 이상 67명으로 모든 성도들이 끝고루 성경을 읽으신 것으로 나타나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제 성경일천독을 마치며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모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기도한다.

사순절의 묵상



김광룡 집사(1교구)

바쁘게 움직이는 시계추 삶은 환상(幻想)과 유혹(誘惑)으로 먼지와 흙탕물 가득한 대지(大地)를 만들고 더럽혀진 얼굴과 찢겨진 몸을 날마다 파운데이션으로 덧칠하며 산다.

21세기 바벨탑을 향해 멸시(蔑視)와 비웃음 속임수에 하나 더 갖고 더 올라가려 뒤는 고사하고 옆 사람도 안 보며 나간다.

하늘 보좌(寶座) 버리고 40일 광야(廣野)에서 금식기도하시더니 할 만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깃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다 불쌍한 우리 영혼 구하시러 가시관과 채찍에 온통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한 주님 고난(苦難) 생각하면 욕심과 불순종 회개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산다면 아직도 내 몸 속에 꿈틀대는 가룟 유다의 피

모든 것 다 버리고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신다.

3.1절 기념주일 - 민족 대표 33인

민족을 사랑한 주님의 사람들

순례자는 3.1절 기념 주일을 맞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16인의 기독교인 가운데 주요 지도자들을 지면에 실는다.



이승훈

민족대표 33인중 기독교 측 주장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교육진흥론 연설에 감동받아 민족운동을 결심했고, 1910년 한석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어 자신이 설립한 오산학교를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 목표를 세우고 운영했다. 일제가 총독암살음모사건인 '105인사건'을 만들어 그 주모자로 이승훈 선생을 지목하면서 이승훈 선생은 투옥을 당하지만, 감옥에서 신약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그는 신약 40회, 구약 10회 통독을 했다. 1924년엔 동아일보사 사장에 취임,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던 그는 1926년 오산학교 이사장에 취임해 재직하다 1930년 별세하였다.



양전백

양전백 목사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 7명 가운데 1명으로 안수를 받았다. 양 목사는 당시 오산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

민족학교였던 신성중학을 세웠고, 보성여학교와 여러 양로원·고아원도 세웠다.

1911년 일본은 일본총독암살음모사건인 '105인사건'을 조작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체포했는데 양 목사도 이때 연루되어 6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하였다. 석방 뒤 양 목사는 교인들에게 "수감중 고문을 이기지 못해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제 강단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1919년 3월 1일 기독교 대표로 독립선언포고문에 서명하고 또 체포되어 3년간 복역하였다. 1933년 양전백 목사는 선천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길선주

길선주 목사는 1897년 기독교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았고, 이 해에 안창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 평양지부를 조직했다. 그 뒤 1907년 한국 최초의 기독교 신학교인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 7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평양 장대현교회를 시무했다. 길선주 목사는 남녀 구별의 불평등을 교회 안에서 타파하기 위해 남녀 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또, 교육사업에도 참여하여 송실학교, 송덕학교 등을 설립하였고 1912년 105인사건 때에도 수난을 당하였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했고 그 후에는 전국을 돌며 부흥사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교회를 설립했다. 길 목사는 평안남도 고창교회에서 별세했다.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

3월8일(토) 오전 9시
스테반회 주관으로

우리교회 제1,2 스테반회 주관으로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실시한다.

스테반회원과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소 전날 7일(금)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이동하여 교회당 1층 북쪽 마당에 주차하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권사회 연합수련회 후기

상담자로서의 권사

전정숙 권사
(제1권사회 부회장)



전날 저녁부터 내리던 눈으로 온천지가 얼마나 깨끗한지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도 이렇게 깨끗이 씻은바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권사 수련회를 통해 홍인종 교수님의 '상담자로서의 권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하고 값진 특권을 땅속에 묻어놓고 무능력과 실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어리석은 자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환란 중에 있는 지치고 곤고한 교우들을 찾아보았던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가? 그들의 아픔을 느꼈던가?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했었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은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의 많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갈증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며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 모습처럼 닦기를 원합니다. 몸을 희생하시 인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본받아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장래와 이웃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춧불처럼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데 태우게 하는 삶, 소금처럼 우리의 몸을 희생하는데 녹이게 하는 삶으로 사는 서울교회 권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최윤정 선생과 테너 최성철 선생의 독창과 이중창으로 이루어진다. 반주는 백경화 선생(시온찬양대 지휘)이 맡으며 이 세 분들은 모두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파트가 다른 두 사람의 이중창은 독특한 예술적 분위기와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곡목은 나운영 작곡시 23편 외에 3곡.

소프라노 최윤정 선생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동대학원 졸업, 국립 오페라단 콩쿨 우승, 현 국립합창단 단원이며 테너 최성철 선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음악저널, 음악교육신문, 난파, 이대웅콩쿨 입상, 현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일(월) 호산나학교 입학감사 예배에서 설교한다. 5일(수) 해군사관학교 졸업감사 파송예배에서 설교한다. 8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 12회 정기발표회를 소집한다.

■ 이영조 집사(12교구, 음악감독)는 국립 예술영재 교육원 초대 원장에 임명되었다.

■ 특남: 5교구 황지영 성도(황정욱 집사, 주경자 권사의 딸) 지승준 성도 가정

■ 주간식당 봉사: 모세선교회(3.2) 도르가 전도회(3.9)

■ 금주의 식사: 정인건 성도 남영주 권사 가정, 교회제공 (자녀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2008 선교사 청빙 청년1부 사랑의 헌혈 호산나학교 입학식

3월26일(수)까지 접수

3월16일(주) 하루동안

3월3일(월)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는 2008년도 선교사를 청빙한다. 선발인원은 00명이며 3월26일(수)까지 접수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세계선교에 비전을 갖는 이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

우리교회 청년1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랑의 헌혈을 한다.

헌혈은 3월 16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 헌혈버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헌혈을 함께할 성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여하면된다.

3월 3일(월) 오후 2시에 2008학년도 호산나 학교 입학식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호산나 학교 입학생은 호산나(대안)학교 6명, 호산나(방과후)학교 6명, 호산나대학 16명 등 총 28명이 입학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파송예배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48기 졸업 및 파송예배가 우리교회 주관으로 2월 27일(수) 오후 5시 대전 간호사관학교 믿음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서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준비된 사람 바울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 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